8 월 13 일 히브리서 11:1-3 믿음의 위력

헨리 비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확신의 손잡이다."** 날마다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야 할 교훈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 눈 앞에는, 내가 선택해야 할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지, 확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에 부딪치든지 항상 확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시험(Test)을 거치지 않은 믿음"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살아 있는 믿음,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그 때가 우리 믿음의 시험기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시험을 거쳐야 살아 있는 믿음, 위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놀라거나 두려워 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죄의 유혹이 오거나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지금 나의 믿음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나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위력있는 믿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이 올 때 두려움의 방 문을 열지 마시고, 확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위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위력이 있는 믿음은 권력이나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감탄하시면서 이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탄식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될 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적어진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위력있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부와 힘을 의지하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자라나는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 역사하는 위력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본문 1 절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살아있는 위력있는 믿음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살아서 역사하는 위력이 있는 믿음은, 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1 절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살아있는 산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라면, 실제로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온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본 다음에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서 확인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눈 앞에 실상이 보이니까, 그 실상을 보고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아닙니다. 확인과 확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확인이 아닌 확신을 원하십니다.

본문의 "실상"(휘포스타시스)이란 말은 "밑에서 바쳐주는 기초와 근거"란 뜻입니다. 즉 기초와 근거가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뤄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바쳐주는 것,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이것이 믿음입니다.

막 11 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지나가실 때 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는데, 저녁에 그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11:24 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이 오기 전에,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즉 받은 것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로 앞구절인 막 11:23 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막 11: 22 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서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구하는 것을 받는 응답의 근거와 기초이고, 산이 바다로 던지우게 되는 근거와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근거와 기초라는 말이 "실상"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안에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고 난관이 많이 있어도, 그 과정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괜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매일 한바퀴씩 돌았는데, 6 일 동안은,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는 커녕 성벽이 갈라지는 작은 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 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절대 무너질 것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만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결국 그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루지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응답이 오고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 문제이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일이 점더 더 어려워지면 안 믿고, 일이 좀 풀려가는 것같으면 믿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귀신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안나갈 것처럼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이길 것처럼 위협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계속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귀신은 쫓겨 나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눅 10:19 의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같이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1 절 하반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즘은 군인들의 장비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적군들의 동태를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적외선 안경을 써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적외선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이란 안경을 쓰고 봐야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고전 4:1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드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세계가 영원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수천만배 귀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존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를 호위해서, 악한 것들로부터 예배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5:8-9,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안 보이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옥도 우리 눈에는 안보이지만 본 것이상으로 두려워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도록 힘쓰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진심으로 믿고 바라는 것은, 모두 다 받은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부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전에 전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청년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성경과는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깊이 생각하며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믿고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겨질 것으로 믿고서,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믿음이 없을 때,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을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눅 17 장에 열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와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큰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 그들의 몸은 문둥병이 낫은 것이 아닙니다.

눅 17:14 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등병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 제사장들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나은줄로 믿고 갔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문둥병이 아직 몸에 그대로 있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와같이 살아 있는 믿음은, 능력있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믿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할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눈 앞에 보고 듣는 것이 어떻든지간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왜 제가 문둥병자에 관한 예를 자꾸드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당하는 일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가 문둥병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둥병자 같은 최악의 상태에 빠지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일 때도 살아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엘리사는 내다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성을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권유로, 마음의 교만을 깨뜨리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자, 문둥병이 나아 어린아이 살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믿고 순종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믿음 다음에 자주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믿어 순종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고에 복을 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창고에 복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는 믿는대로 순종할 때,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첫째 응답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눈에 안보여도 보이는 것같이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믿고 몸으로 행동하여, 믿어 순종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위에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나의 죽은 믿음을 변화시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